

내년 수출지원예산 사상 첫 1조

정부, 이번주 '혁신방안' 발표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논의

정부가 내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한다. 최근 9개월 연속 수출 부진이 이어진 탓이다. 활력 회복과 시장 다변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수출 시장구조 혁신을 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관련 추가경정예산으로 1168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1조7300억원에 달하는 수출지원 예산이 주어진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3조7000억원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확대된 예산은 중소기업 신시장 진출 지원(2조원),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1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대체(3000억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200여곳에 대한 수출 바우처도 신설된다.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곳에서 65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주 발표될 예정인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과 수출지원기관·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전세계 수출 지역을 3곳으로 나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3대 시장은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으로 나뉜다. 이는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1%에 불과한 수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한류 등 전략 마케팅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하고 기존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 수출 품목을 고급화하기로 했다.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이상 인수합병(M&A) 자금과 세계 지원도 추진된다. 유레카(Eureka)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연구개발(R&D) 협력 플랫폼 등 통해 관련 기술개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회의의 참가자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 개·국내 수입기업 10만개에 대한 기업 정보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장기적·체계적인 수입 전략을 마련하

고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0억원의 추정예산을 활용한다. 이는 대기업 양산 라인을 활용한 평가와 R&D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업 정보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장기적·체계적인 수입 전략을 마련하

고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0억원의 추정예산을 활용한다. 이는 대기업 양산 라인을 활용한 평가와 R&D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업 정보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장기적·체계적인 수입 전략을 마련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도착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5박6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을 공식방문하고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 방문을 했다.

문 대통령 "아세안과 협력, 특정 국가 의존도 줄이는 길"

라오스 방문 마치고 귀국길에 SNS 통해 "진정한 교랑국가 되기 위해 손 잡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우리에게 아세안과의 협력은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수출을 다변화하고 자유무역의 영역을 확대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교랑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아세안과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나라들은 메콩강의 잉어처럼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며 "모두 젊고 역동적이어서 미래가 밝다. 조화와 나눔의 문화로 서로의 나라를 존중하면서 발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라오스 분당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아세안 열 개 나라 정상들을 모두 만났다. 한결같이 우리와의 협력을 반가워했고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줬다"며 "그 사이 베트남에서는 LNG 수입기지인 티바이 LNG 터미널을 수주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스마

트시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다른 많은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힘이 됐던 것은 순방 때마다 만난 현지 우리 기업, 교민들과 아세안을 찾는 우리 국민들이었다"며 "아세안이 사랑하는 한류 문화의 저력도 실감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최초로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결코 의례적인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이 소중한 나라들과 우정을 쌓고 공동번영의 씨앗을 심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도의회 농산경제위, 해외 정책연수 마쳐

독일·네덜란드 찾아 스마트팜 등 우수사례 견학

전라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바이오에너지 산업 현황 및 선진 스마트팜 조성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한 정책연수를 마쳤다.



이번 해외 정책연수는 독일의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네덜란드의 선진 스마트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등 농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되었다.

농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바이오 가스 플랜트 건설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웰텍 바이오 파워(Weltec Biopower) 분사 방문을 통해 독일의 바이오에너지 시설 구축 현황 및 재생에너지 관련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가축분뇨를 비료와 물로 분리해 처리하는 쿠막(Kumac) 시스템 시설을 돌아봤다.

이어 방문한 네덜란드에서는 유리 온실을 활용해 토마토를 시설재배하고 있는 토마토월드와 함께 농식품물류산업 중심에서 최근 농업 및 원예산업 자동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비스콘 그룹을 방문해 스마트 수경재

배 현황을 청취하고 농산물 자동물류 시스템 등 현장 견학을 견학했다. 김철수 의원은 "개방화, 고령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 현실 속에서 스마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첨단 농업을 이끌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도내 스마트 양식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해수 순환여과 방식을 통해 넙치류인 터벳을 양식하고 있는 씨팜(SeaFarm)을 방문해 자동 제어 및 관리시스템, 자동 사료공급시스템 및 폐수 정화장치 등 시설을 살펴봤다.

강용구 위원장은 "연수 일정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 모든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연수에 참여했다"며 "앞으로 바이오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스마트팜 조성 등 연수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위원장, 대안정치연대에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 위원장 윤준병은 대안정치연대 대 김기욱 대변인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에 따른 모 언론사의 '서울지하철 공공의이피이 수주전' 보도를 둘러싸고 윤준병 당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관련된 것처럼 해명을 요구한 정치공세에 대해 법적책임을 고민 중이라며, 대안정치연대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킨데 대해서 강력히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7.6)는 최초 입찰과 재입찰시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초고속 WiFi 사업은 그 어떤 업체의 초고속 WiFi 기술수준도 서울시철공사가 요청한 기술수준에 이르지 못해 입찰이 취소되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만큼 서울시 조치가 허술하지 않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지난 6일 김 대변인은 "당시 이 사업에 연관된 것으로 거명되는 윤준병(현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당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등 민주당 정치인이 보도되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관련자들의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조국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참프레
CHARMFRE

스트레스 받지 않아 참 건강한 닭!

동물복지
(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는 역시 참프레

동물복지 닭고기 최초·최대 기업

동물복지 농장주 김재훈

(주)참프레 전북 부안군 행안면 옥여길 32-29 Tel.063-580-6000 홈페이지 www.charmfre.co.kr 쇼핑몰 mall.charmfre.co.kr